

2022. 8. 18.[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의원실) 010-9254-9137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연속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과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단장 : 우원식)은 지난 7.22자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노사협상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국회 연속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대우조선해양TF 연속토론회는 8.18(목)부터 8.25(목), 9.1(목), 9.7(수)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8월 18일)는 대우조선해양 대응TF 단장을 맡고있는 우원식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해가압류” 라는 주제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이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부각된 현행 손해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과 이른바 ‘노란 봉투법’ 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우원식 TF단장은 “대우조선하청노조가 농성을 멈추고 교섭은 타결됐지만 천문학적 금액을 앞세운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며, “대우조선해양 사측이나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 파업’ 이라는 낙인을 찍기에 급급했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손해소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주제별로 살펴보게 된 것” 이라며 이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첫 번째 토론주제인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이 19·20·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현황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여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관련 입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TF는 시민사회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연속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첫 번째 주제인 “손배소” 문제에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보장(2회차), 대우조선해양 원하청구조의 문제점(3회차),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방안 모색(4회차)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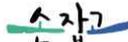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가압류	
	8/18(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탄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8/2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3탄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9/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4탄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 방안 모색	
	9/7(수) 오후 2시	국회본관 203호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문의 강민정의원실 02-784-2477-9, 을지로위원회 02-6788-3201